

작년 도내 인구전출 경기도 가장 많아

서울·충남 뒤 이어 20대 이동비율 높아

전북의 인구가동이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2015년 전북의 인구이동'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북 총 전입자와 총 전출자는 2003년에 정점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북의 총 전입자는 26만 1,832명, 총 전출자는 26만4,662명으로 2,830명이 전북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2000년 이후의 전북 순이동은 2011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전엔 서울이 전출지로 인기가 높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전북 전입·출자는 서울이 가장 많았지만 2015년에는 경기지역에서 전북에서의 전출자(17,553명)와 전입자(18,131명, 26.4%) 모두 가장 많았다. 전북의 3대 전입·출지를 보면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 지난해에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과 광주

가 뒤를 이었다.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경기도 이어 서울과 충남이 인기가 높았다. 연령대별 인구이동을 보면 예전에 비해 젊은 층의 순유출이 높았다. 지난해 전북 20대의 순유출이 40대 이상의 순유입보다 크기 때문에 도내 전체적으로 20대 연령층의 이동이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등으로 직업을 찾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전북의 청년일자리를 창출 노력이 시급함을 대변했다. 시군별로는 혁신도시 덕에 완주군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시군별 인구이동을 보면 완주군이 4,781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임실군(492)과 고창군(348), 순창군(99), 정수군(96)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에서는 3,011명의 인구가 빠져나간데 이어 익산시(-2,417), 정읍시(-877), 김제시(-876), 군산시(-543) 등 주로 시지역 유출이 많았다. 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 "2000년 이후 전북 성별 순이동인구를 보면 2011년을 제외하고 남녀 모두 순유출이 많았지만 그 중 남자 순유출이 높았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교육. 전주시 2015년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결과 분석 및 2016년 행정성과평가 추진계획 등에 대한 직원교육이 24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 지난해 출산율 1.24명... OECD 최저

전년보다 0.03명 상승 15년째 초저출산 상태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쳤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전년(1.21명)보다 0.03명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진 뒤 15년째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이 소폭 상승한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1.21명)이 유일하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8.6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년 전인 1995년(15.7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출생아 수도 역대 4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8700명으로 전년(43만5400명)보다 3300명(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간 출생아 수가 44만명을 밑돌았

던 해는 지난해를 비롯해 2005년(43만 5031명), 2013년(43만6455명), 2014년(43만5435명) 등 4차례 뿐이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8000명(3.0%) 증가한 27만5700명을 기록했다. 연간 사망자 수는 2010년까지 25만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사망이 많이 발생하는 70대와 80대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출생아 수가 정체되고 사망자 수는 점차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건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16만3000명을 기록했다. /박용주 기자

전북경찰 제1기동대 상반기 진압훈련

내달 8일까지 실시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대장 이일문)는 내달 8일까지 4주간의 일정으로 김제 스파랜드에서 2016년 상반기 진압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제1기동대를 비롯하여 상설부대 5개 중대가 참여한 대규모 불법시위대비 집중훈련으로, 다양한 집회와 시위 상황 속에서 인권침해 및

시민불편 최소화를 추구하고 불법관행 근절을 실현하는 등 실천 현장 대응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일문 대장은 "지난해 있었던 '서울민중총궐기 집회' 후, 불법 집회시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 맞춰 이번 훈련이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영 기자

덕진구,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추적 박차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활용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상습적으로 고액의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의 금융재산 추적,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덕진구는 체납세 근절을 위해 금융재산을 손바닥 보듯이 훑어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 특출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자예금압류는 납부능력이 있으나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들의 예금을 압류, 추심하는 강력

한 징수방법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덕진구는 지난해 하반기 체납자 300여명 체납액 17억여원에 대해 전자예금압류로 2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반기 특별징수기간인 이달에도 2000만원 이상 체납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덕진구 김우열 세무과장은 "고질 상습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추적해 조세징의를 실현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강력하고 엄정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수십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천만원 을 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25일부터 총 44차례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업체가 거래처들에 총 17억8200여만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2014년 9월30일부터 같은 해 12월30일까지 31회에 걸쳐 자신 이 운영하는 업체가 거래처들에 10억

3300여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대가로 총 9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종 범행전력이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누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거짓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가산세 납부 등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노트북 판매 미끼 돈 가로챈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노트북 판매를 미끼로 구매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노트북을 싸게 판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피해자 30명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가

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황은 인정되나, 물품 판매를 빙자해 거액을 편취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 16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용주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